

증권IB·저축은행 수장 교체… 변화 보다 ‘안정’에 방점



6개 계열사 CEO 인사

KB증권 IB부문 후보에 강진두
저축은행 대표이사 후보 박산업

5개 계열사, 현 대표이사 재추천
이달 중 최종심사 후 확정 예정

KB금융이 변화보다 안정을 선택했다.

KB금융지주는 16일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대추위)를 개최해 이달 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KB증권 등 6개 계열사의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했다. 신임 대표이사 후보는 KB증권 IB부문에 강진두 현 KB증권 경영기획 그룹장 부사장, KB저축은행에 박산업 현 KB국민은행 개인고객그룹대표 부행장이다. KB증권 WM부문과 KB손해보험, KB자산운용, KB캐피탈, KB



강진두 KB증권 IB부문 대표이사 후보

부동산신탁의 경우 현 대표이사를 재추천했다.

KB증권 IB부문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된 강 부사장은 기업금융, 인수금융, 글로벌 등 다양한 IB 영역을 거치며 시장 경쟁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췄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또한 영업과 경영관리를 두루 경험한 균형감을 기반으로 안정적 세대교체와 지속 성장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는 준비된 리더



박산업 KB저축은행 대표이사 후보

라는 평가를 받았다.

KB저축은행 대표이사로 추천된 박 부행장은 디지털, 마케팅을 아우르는 경험을 토대로 KB저축은행을 키위뱅크(Kiwibank) 중심의 디지털 전문채널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받았다. 또한 고객기반 확대를 위한 은행과의 시너지 창출 역량도 겸비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이흥구 KB증권 WM부문 대표이사

는 선임 이후 고객 가치 중심 영업기반 강화 및 초개인화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 고도화 노력을 통해 WM 자산규모를 확대하는 성과를 시현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구분육 KB손해보험 대표이사는 리스크관리 전문성을 기반으로 상품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장기인보험 점유율을 개선하는 등 시장지위를 확대하는 성과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영성 KB자산운용 대표이사는 재임기간동안 운용자산(AUM)과 당기순이익을 균형감 있게 성장시켰으며, ETF·연금·TDF 등 핵심 영역에서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는 성과창출 역량을 보유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빈종일 KB캐피탈 대표이사는 ‘KB 차차차’의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추진을 통해 수익 모델을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내실성장을 위한 우량 자산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등 실행력과 전문성을 겸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성재현 KB부동산신탁 대표이사는 부동산PF 시장 경색 장기화 등 비우호적인 경영환경에서도 내부 현안과 사업 구조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선제적인 리스크관리와 성공적인 체질 개선을 완수할 수 있는 추진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추위는 “새로운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방식 전환과 시장·고객의 확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분들을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했다”며 “추천된 후보자들은 각 계열사의 내실있는 성장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KB금융이 고객과 시장, 주주에게 더욱 신뢰받는 국민의 금융그룹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해줄 바란다”고 밝혔다.

추천된 후보는 이달 중 해당 계열사의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최종 심사 및 추천을 통해 주주총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신임 대표이사의 임기는 2년, 재선임된 대표이사의 임기는 1년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은행 희망퇴직’ 연령 낮아지고 위로금 줄어

신한, 18일까지 희망퇴직자 접수
근속 15년 이상 40세부터 대상
농협, 31일 발령… 20개월치 임금 지급
우리, 10년이상 재직자 희망자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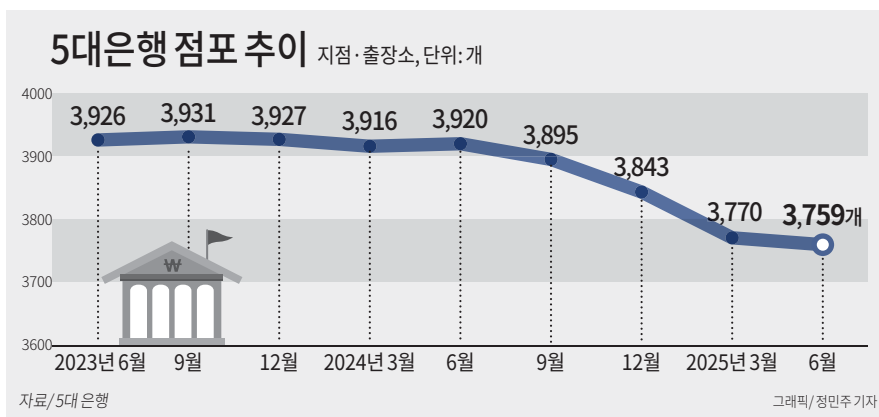
연말을 맞아 은행권 전반에 희망퇴직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인력감축이 은행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50대에서 40대로 연령층도 낮아졌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희망퇴직자 접수를 받는다. 희망 퇴직일은 오는 2026년 1월 2일로, 부지점장(부부장) 이상 직원 중 근속 15년 이상, 1967년 이후 출생 직원이 대상이다.

4급 이하 일반직원을 대상으로도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근속 15년 이상, 1985년 이전 출생직원으로 만 40세부터 대상이다. 특별퇴직금 규모는 출생 연도에 따라 월 기본급의 7~31개월분으로 책정됐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달 18일부터 21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1969년생 직원은 퇴직당시 평균임금의 28개월, 근속 10년 이상 40세 이상 일반 직원은 평균 임금의 20개월을 지급받는 다. 발령일은 오는 31일이다.

하나은행 역시 지난 7월 준정년 특별 퇴직을 시행하며 근속 15년 이상의 만



40세 이상 직원을 희망퇴직 대상자로 받았다.

우리은행도 올초 1월 2일부터 7일까지 입행 후 10년 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았다.

국민은행은 이달 말 희망퇴직을 신청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은행의 경우 희망퇴직 신청 대상 연령이 2022년 1972년생에서 지난해 1974년생으로, 1년 만에 대상 나이가 2년 낮아진 바 있다. 국민은행의 경우 2023년에 18~31개월치 임금이 특별 퇴직금으로 지급됐지만, 2022년까지만 해도 23~35개월치가 지급됐다. 희망퇴직 처우가 줄고 있다는 분석이다.

은행들이 희망퇴직 대상연령을 낮추고 있는 이유는 인건비 절감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인력구조 개편 때문이다.

은행의 국내 점포(지점, 출장소)는 ▲2023년 6월 3926개에서 ▲2024년 6월 3920개 ▲2025년 6월 3759개로 급격히 줄었다.

비대면 금융이 확대되면서 영업점 기반의 인력 활용도가 떨어졌고, 대면 중심 업무에서는 추가적인 생산성 향상이 어려워지자 은행들은 고정비 성격이 강한 인건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에 나섰다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의 직원 수는 1년 사이 각각 534명, 681명 줄었다. 이에 따라 1인당 총당금적립 전이익은 올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6100만원, 1억 600만원 증가했다. 인력 감축이 사측 입장에서는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KB국민은행, 현대차·기아 협력사 금융지원

총 1000억 규모 협약보증 우대지원

KB국민은행은 지난 15일 현대자동차그룹, 기술보증기금과 ‘현대자동차그룹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 현대차·기아와

체결한 10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업무협약에 이은 후속 협약이다.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고 상생협력을 강화해 협력사에 보다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금융지원은 현대차·기아가 출연한 50억원을 재원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우대 지

원한다. 이를 통해 KB국민은행은 현대차·기아와 함께 총 2000억원 규모의 대출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됐다. 지원 대상은 현대차·기아 1차 협력사이며, 기업당 대출 가능금액은 50억원 이내이다.

특히, KB국민은행의 추가 금리할인 혜택과 현대차·기아의 이차보전, 기보의 전용보증을 결합해 현대차·기아 협력사의 실질적인 금융 부담을 완화시켜 줄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역삼센트럴자이 특공 경쟁률 256대 1

43가구 모집에 총 1만1007명 몰려
24일 당첨자 발표, 내달 5일 계약

‘10억 로또’ 청약 단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역삼센트럴자이’ 특별공급에 1만 명 이상이 몰렸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5일 진행된 역삼센트럴자이 특별공급에서 43가구 모집에 총 1만1007명이 신청했다. 평균 경쟁률 255.97대 1이다.

유형별로는 생애 최초 전형 7가구 모집에 가장 많은 4884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신혼부부 17가구에 4382명이 몰리고 다자녀 가구(1629명), 노부모 부양(87명), 기관추천(25명)이 뒤를 이었다.

역삼센트럴자이는 서울 역삼동 일원에서 추진되는 재건축 사업이다. 지하

3층~지상 17층, 4개 동, 총 237가구로 규모가 작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59~122㎡ 87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이곳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평균 분양가는 3.3㎡당 8067만원이다.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으로 전용 59㎡ 20억1200만원, 전용 84㎡ 26억9700만~28억1300만원, 전용 122㎡ 37억9800만원이다.

국민평형인 84㎡ 분양가도 30억을 밑돌아 당첨 시 10억원 안팎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지난달 인근 구축 아파트 개나리래미안은 전용 84㎡가 35억원에, 역삼푸르지오 전용 59㎡는 29억 60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역삼센트럴자이는 강남이란 입지에 더해 교통 인프라, 명문 학군까지 강점으로 꼽힌다. 입주는 오는 2028년 8월로 예정돼 있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

헤우이엔씨, 양주 주상복합 대체시공 수주

지하 5층~지상 38층 규모 2개동
아파트 243세대, 오피스텔 56실 등

종합건설사 헤우이엔씨(☞)가 경기 양주시에 짓고 있는 주상복합건물의 대체시공을 수주했다.

헤우이엔씨는 경기 양주신도시 덕계역 인근에 들어서는 지하 5층, 지상 38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의 승계공사를 수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건물은 아파트 243세대, 오피스텔 56실, 상가 등 2개동으로 구성돼 있다.

이곳은 시행사가 신탁사와 책임준공형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을 맺은 현장이다. 대체시공사로 선정된 헤우이엔씨는 신탁사 및 시행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관계자 변경을 완료했고, 기존 하도급사를 중심으로 승계계약을 협의하며 지난 달 중순부터 승계공사에 들어갔다.



경기 양주시 주상복합건물 조감도. /헤우이엔씨

송충현 헤우이엔씨 대표는 “이번에 수주한 건물은 양주시 랜드마크 건물만큼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 그동안 축적된 대체시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선의 솔루션을 찾아 우수한 품질로 주어진 기한내에 준공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성채리 인턴기자